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루마니아

(Romania)

I. 일반개황

면적	238.4천 km ²	G D P	1,684억 달러(2007년)
인구	21.44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7,856 달러(2007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Lei
대외정책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환율(달러당)	2.44(2007년 평균)

- 루마니아는 2007년기준 1인당 GNI가 6,150달러*로 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UMIC)에 속하며, 인구규모로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터키, 폴란드에 이어 3위 국가임.
- 주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이 뒤쳐져 있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능력이 IMF 등 국제기구로 비판받고 있으나,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 성공을 통해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EBRD 체제전환 지표(민영화, 가격자유화, 무역시스템, 금융자유화 등) 기준에 의거, OECD에서는 2008년부터 시장경제 체제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 2012년 ERM-II 도입 및 2014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EU로부터 부패척결과 사법개혁 노력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Atlas Method(3년 평균환율 사용) 기준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제성장률	8.5	4.2	7.9	6.0	8.2
재정수지 / GDP	-1.0	-0.8	-1.5	-2.3	-3.5
소비자물가상승률	11.9	9.0	6.6	4.8	7.9

자료: IMF, EIU.

□ 건설업 호황 및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 2006년 이후 경제성장은 실질임금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수요 증대 및 주택·쇼핑몰·도로·발전소 등 다양한 건설수요 증가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에 주로 기인함.

* 실질임금 상승률: 11.6%(2006) → 16.9%(2007)

* 건설업 총부가가치 증가율: 19.4%(2006) → 33.6%(2007)

- 또한, 2006년에는 농작물 작황 호전('05년 가뭄으로 흉작) 및 산업생산량 증가(전년대비 7.1%)에 힘입어 실질 GDP성장률이 7.9%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2007년 다시 가뭄이 들어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산업 생산증가율도 다소 둔화되어 실질 GDP성장률이 6.0%로 하락하였음.

- 2008년에는 전년도의 가뭄이 해갈되면서 농업생산량이 큰 폭을 증가하였고, 가계소비 및 고정투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3분기 실질 GDP성장률(전년대비)이 9.1%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 공산품(자동차, 금속제품)의 생산 감소 및 대량해고가 잇따르면서 연중 실질 GDP성장률은 8.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루마니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Dacia(프랑스 Renault 소유)가 11~12월중 18일간 조업 중단

- 2009년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악재로 인해 실질 GDP성장률이 2.5%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동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신뢰 하락 및 그간의 임금수준 상승으로 인해 투자 감소가 우려되며, 내수 호조를 뒷받침하던 해외차입을 통한 국내 신용시장 팽창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고, 주요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출 둔화도 예상됨.

□ 2007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 고조

- 1997년 경제자유화 이후 150%를 상회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자본주의 경제의 정착과 함께 점차 안정되어 2005년에는 10% 이내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4.8%를 기록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08년에는 2007년 하반기 이후 눈에 띄게 상승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및 임금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상승하여 7.9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중앙은행은 연말 물가상승률 목표: 6.7%

- 2009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이행이 뒷받침된다면 5.8% 수준으로 금년대비 다소 하락 전망됨.

□ 재정수지 악화 추세 지속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으로 2007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2.3%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재정수지는 9월말 기준 GDP대비 -1.4%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총선관련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연말 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초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 EU 및 IMF의 긴축재정정책 운영 권고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09년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수당 지출 증가 및 세입 감소,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심화(교육근로자 50% 인상합의) 등으로 재정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예상됨.
- * 루마니아 정부의 2009년 예산안(GDP대비 -2% 재정적자)은 아직 의회 심의가 보류 중인 상태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분석됨.

2. 경제 구조 · 정책

□ 제조업 기반 취약

- 1990년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경제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 나간데 반해 루마니아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속 및 제조업 기술력 육성 실패 등 구조조정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됨.
- * 산업별 GDP 구성(2007): 서비스업 55.8%, 제조업 26.4%, 건설업 10.3%, 농림업 7.5%
- * IMF는 루마니아의 경제구조 개혁이 정책 실패로 인해 여타 신규 EU 가입국에 비해 뒤쳐져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EU내 실질적인 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최근 외국인투자(FDI) 유입을 통한 산업 현대화가 자동차·제약·도소매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거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경제 부문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로의 신규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소비재 수입 급증

- 2008년 6월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산업생산력 제고를 위한 자본재 성격의 기계·장비 수입규모는 2000~02년중 GDP대비 4%에서 2006~07년중 GDP대비 5%로 소폭 증가하였고, 동 기간 동안 에너지·원자재·중간재 수입은 GDP대비 7~10% 규모에서 변동을 보였음. 반면, 소비재(자동차 제외)는 2002년 순수출 규모가 GDP대비 6%이었으나

수입이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균형 수준을 이루게 되었고, 자동차의 경우 2003년 이후 수입규모가 4배나 증가하였음.

□ 변동환율제 채택으로 환율 변동성 큰 편

-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틱국가의 경우 자국 통화가 유로화에 페그되어 있어 자율적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시장 충격 완화가 어려운 대신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제 불안 가중이 덜한 편임. 반면, 루마니아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 자급률 소폭 상승 예상

- 천연가스·원유·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기 순수출국이나, 에너지 수요의 약 3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06년 12월 에너지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기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에너지 자급률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원전 건설 추진으로 원전의 에너지 공급비중이 2012년 25% 수준 까지 확대될 전망

□ 민영화 부진과 함께 2007년 외국인투자(FDI) 유입 위축

- 2004년 이후 각종 민영화 정책에 힘입어 FDI 유입액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의 89%를 보전 할 정도로 증가 하였으나, 2007년 민영화 사업건수 감소와 함께 FDI 유입액도 경상수지 적자액의 43% 규모로 감소하였음.

* 연중 FDI 유입: 65억달러('04) → 65억달러('05) → 114억달러('06) → 99억달러('07)

- 한편, 2008년 1~3분기 중 FDI 유입액은 72억유로로 추정되어 동 기간 경상수지 적자액의 5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년 수준의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악화 및 확대 재정정책 지속으로 안정적 경제운영 어려움

- 경상수지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 및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정책 대응에 실패하였음. 이에, 경제규모 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 하반기 이후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증시 하락 등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됨.
- 한편, 2008년 11월 자유당(NLP) 정권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내수 부양을 위한 신용확대나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기적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음.

*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가계·기업 예금 및 기업의 재투자 배당금에 대한 16% 단일 세율 면제, LEI 38만 이하 주택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 인하(19%→5%), 사회보장비용 분담금 2% 인하(2009. 6월 이후), 가계·기업 소득세 5% 인하,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보조금(1인당 EUR 1천) 지원, 최초 자동차 등록세 시행 연기

□ 신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실행 의지가 관건

- 루마니아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신 정부(2008년 12월 구성)의 재정정책 방향 선회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즉, 전 정권(NLP)에서 결정된 2009년 교육부문 공공근로자 임금인상 및 연금지급 증액에 대한 실행 자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해 신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신 정부가 FDI 유입 활성화를 위한 16% 단일 세제 도입을 발표한 점은 고무적임.

□ 2008년 8월 이후 금리 유지

- 2007년 10월 긴축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한 이후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IMF는 민간부문 외화 차입 증가로 인한 신용팽창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기준금리 변화: 7.5%('07.11.1) → 10.25%('08.8.1)

-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환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레우화(LEU)의 유로화 대비 가치가 11월 중 5.7%나 하락하였음.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은행차입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신규 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기준율을 인하(20%→18%)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 상 수 지	-6,382	-8,621	-12,785	-23,136	-26,679
경 상 수 지 / G D P	-8.4	-8.7	-10.5	-13.7	-14.9
상 품 수 지	-6,665	-9,618	-14,836	-24,340	-30,774
수 출	23,485	27,730	32,336	40,349	53,958
수 입	30,150	37,348	47,172	64,689	84,732
외 환 보 유 액	14,616	19,872	28,066	37,194	36,000
총 외 채 잔 액	29,581	39,077	55,114	73,290	82,870
총 외 채 잔 액 / G D P	39.1	39.5	45.2	43.5	42.2
D . S . R .	17.2	20.1	20.9	24.1	19.0

자료: IMF, EIU, World Bank

□ 환율 변동으로 달러화 표시 외환보유액은 감소

-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 시현에도 불구하고 2005~07년 중앙은행은 외화매입을 통하여 외환보유액을 늘려왔음. 또한, 시중은행의 해외 외화차입이 증가하면서 외화지급준비금이 증가하였으며, 중앙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증가한 점이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됨.

* 중앙은행 발표 외환보유액: 253억 유로(2007) → 272억 유로(2008.11)

- 그러나 루마니아의 외환보유액이 유로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 하락에 따라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은 감소하였음. 또한,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8년말 추정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은 수입 4개월분으로 전년 5개월 규모에서 감소하였음.

* 1 유로당 달러화 환율: 2006년말 1.32 → 2007년말 1.47 → 2008. 11월말 1.27

□ 2008년부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 개선 전망

-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우려할 만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2008년에는 금속제품 수출가격 상승 효과 및 수입 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폭의 GDP 대비 10% 수준 하락이 기대됨.
- 반면, 2009년부터는 유럽 노동시장 위축으로 인한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가 예상되어 경상수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지속, 해외 근로자의 임금 송금 증가

- 부문별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을 압도하는 수입규모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송금 증가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폭도 증가하고 있음. 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임금 송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수취 규모(2007년 기준 상품수출액 24% 수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
- 한편, 서비스 수지는 관광 수입 등으로 그간 흑자를 기록하던 것이 2008년 9월말 적자로 반전하면서 이례적인 양상을 보여주었음.

□ 민간부문 외화차입 증가세 다소 완화

- 2005년 자본거래 완전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급증하여 2006년 이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130%를 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 가중에 따른 해외차입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2008년 1~8월 중 은행 부문의 해외차입은 전년 동기대비 약 11%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공적채무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

- 공적채무 규모가 GDP의 12%로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헝가리나 우크라이나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며,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총외채 규모가 헝가리의 20%에도 못 미치고 우크라이나에 비해 수출구조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8년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정당간 팽팽한 세력 대결

- 2008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DP)과 보수당(CP) 연합이 33.6%의 득표율을 얻어 2위와 득표율 차이가 0.6%포인트에 그침. 한편, 선거율은 39.1%로 체제전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임을 반영하였음.

* 정당별 총선 득표율(2위 이하): DLP 33.0%, NLP 18.7%, 헝가리민주연합(HUDR) 6.3% 등

-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2대 야당인 사회민주당(SDP)과 민주자유당(DLP, 2008년 1월 DP가 소수 정당을 규합하여 창당)이 모두 28%의 득표율을 얻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당(자유당, NLP)을 견제할 만한 세력을 얻지 못하였음.

□ 정치성향이 대립적인 SDP-DLP가 연정 구성

- 총선에서 비등한 득표율을 획득한 사회민주당(SDP, 좌파)과 민주자유당(DLP, 중도우파)이 연정 구성을 발표(12.14)하여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부가 탄생하였으나, 양당간 긴 정치 대립의 역사 및 현재 양당의 의회 의결권이 비슷한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루마니아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2009년 예산안 합의를 두고 정당간 지지기반 차이로 인한 분열이 우려됨. 또한, 여러 소속 인사들이 부패에 연루된 SDP와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친EU 성향 DLP의 향후 대립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 SDP는 농촌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관철 시킨 전례가 있고, DLP는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비교적 부유한 도시지역에 주요 지지기반을 두고 있음.

□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2004년 5월 NATO 가입 및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주요 외교정책 기조는 동 체제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아 내 압하지와 및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NATO 및 EU 차원의 대응에 동의함을 밝혔음.
- 인접국인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는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몇 안 되는 코소보 독립선언('08.2) 미승인 국가임.

□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긴장관계

- 우크라이나와는 흑해지역 해양경계 확장문제가 잠재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NATO 가입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아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및 바세스쿠 대통령의 러시아 에너지 안보정책 비판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쟁상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음.

- 한편, 루마니아는 몰도바에 대한 잦은 내정간섭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나, 양국간 관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몰도바는 19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 국민의 6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민족적 갈등은 미미,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심화

- 인구의 약 9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갈등요인이 없음.
- 2008년 들어 공공부문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문의 3대 노조는 11월 초 단기 파업을 단행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 2007년까지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으나, 2008년 10월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해외 차입 규모가 큰 동유럽 지역 국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S&P와 Fitch는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S&P(10월)는 등급 하락 사유로 민간부문 해외 차입에 기반을 둔 내수 과열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총선 관련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이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정책 오류를 지적하였음. Fitch(11월)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 운영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 OECD : 5등급('03.1) → 4등급('04.1) → 3등급('07.1)
- * Moody's: Ba3('03.12) → Ba1('05.3) → Baa3('06.10)
- * S&P : BB('03.9) → BB+('04.9) → BBB-('05.9) → BB+('08.10)
- * Fitch : BB('03.12) → BBB-('04.11) → BBB('06.8) → BB+('08.11)

2. 외채상환실적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 리스케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후 채무구조 개선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음.
- 2008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앞 단기외채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 단기: 총지원잔액 1.4억달러(연체잔액 1.3%, 1.9백만달러)
 - * 중장기: 총지원잔액 28.4억달러(연체잔액 0.04%, 1.4백만달러)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증가, 수출초과 기조 유지

- 대 루마니아 수출: 6.1억달러('06) → 8.5억달러('07) → 6.5억달러('08. 1-10)
 - * 주요 수출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 대 루마니아 수입: 0.5억달러('06) → 0.8억달러('07) → 1.8억달러('08. 1-10)
 - * 주요 수입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판

□ 해외직접투자 현황('08.9월말)

- 총 23개 신규 현지법인 설립 및 2.7억 달러 투자실적 기록

V. 종합의견

-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신용증가에 따른 내수과열 및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 거시경제 불안요인임. 주변 경제위기국에 비해 금융 및 외환구조가 안정적인 편이나, 향후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긴축재정정책 운영이 필수적으로 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한편,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유럽 신흥국가로 파급되면서 루마니아의 국제신인도도 하향 조정(S&P, Fitch)되었음.
- 2008년 11월 총선이후 12월 좌우파 정당이 연합함으로써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상이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향후 내부 갈등이 원만한 국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예상임.

전문연구원 구윤정(☎02-3779-6665)

E-mail : kooyj@koreaexim.go.kr